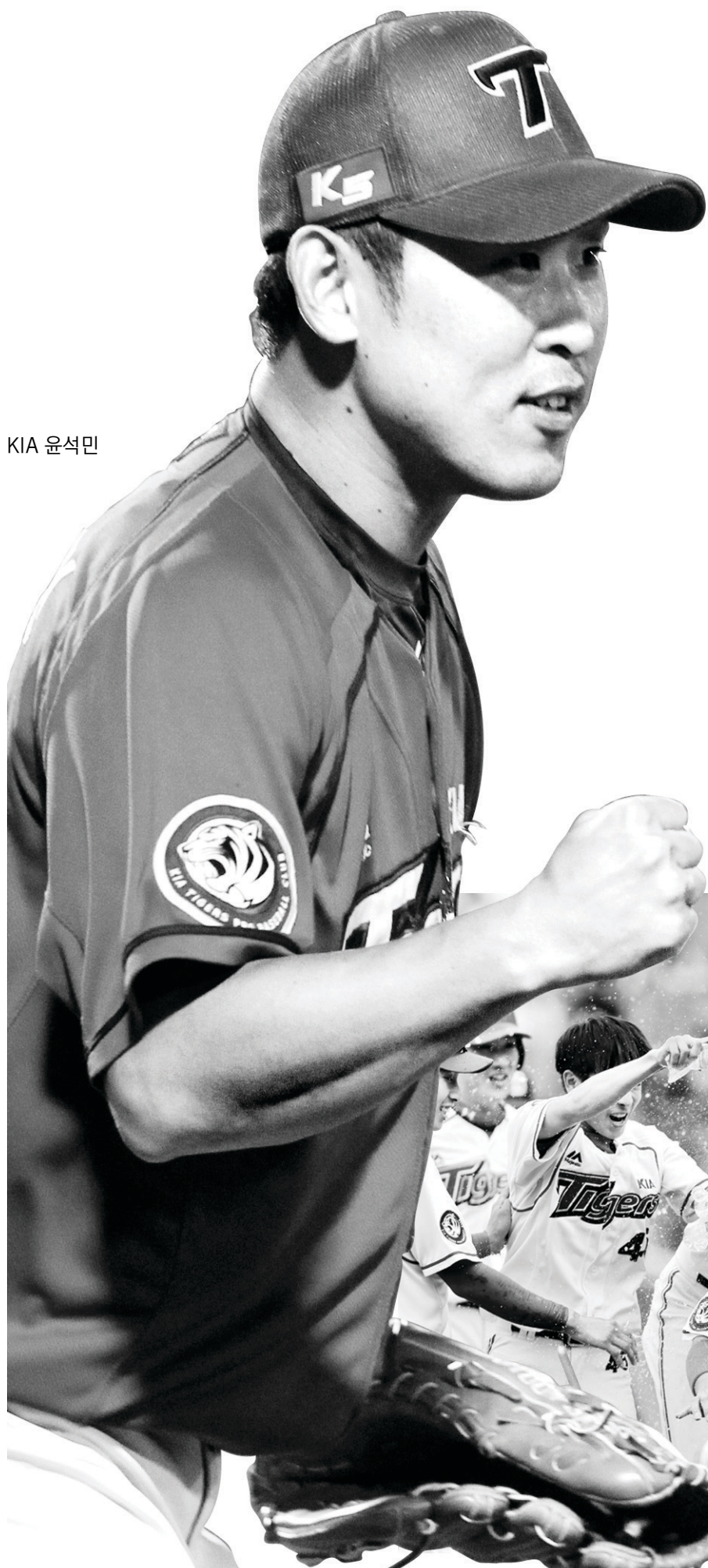


광주·전남 스타 2016 어떤 감동 줄까



KIA 윤석민

부활... 기적... 그라운드 달군다



피츠버그 강정호

KIA 타이거즈, 달라진 덕아웃·단단해진 선발진

윤석민 선발 복귀·용병 수혈... 선발왕국 재연 마무리 찾기·나지완 등 타선 부활 속제 남아

‘김기태호’의 두 번째 행해가 시작된다. 지난해 KIA 타이거즈는 ‘역전의 명수’가 됐다. 17년차 베테랑 김민우가 프로 첫 끝내기 홈런을 터트리면서 그라운드를 돌았고, 안방싸움의 새로운 축을 형성한 백용환도 담장을 넘기며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모범생’ 브렛 필은 끝내기 세리모니의 단골 손님이 됐다. 8번의 끝내기, 33번의 역전승. 무기력하게 돌아서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고 있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하던 선수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승부를 펼치며 팬들을 다시 환호하게 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최하위 순위에서 ‘뜻밖의 5강 싸움’을 하며 가을을 뜨겁게 달구었던 KIA. ‘경쟁’의 무대에서 새로운 신예들이 대거 등장했고 승부근성이 덕아웃을 채웠다.

2015시즌의 변화를 발판 삼아 2016시즌 강력한 선발 야구를 준비하고 있다. 사연 많고, 굴욕 많았던 윤석민이 예이스로 다시 선다. 윤석민은 험난했던 2년의 겨울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소용수가 되었다. 완벽 못했던 몸 상태와 팀의 불행 상황으로 뒷문을 지켰던 윤석민 올 시즌에는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윤석민의 가세로 막강 선발진이 KIA의 큰 전력이 될 전망이다.

노련미를 더한 좌완 예이스 양현종과 함께 특급 선발 자원으로 꼽히는 헥터 노예시·지크 스프루일이 외국인 선수 콤비를 형성했다. 비어있던 5선발 자리도 든든하다. 스피드를 버리고 컨트롤로 제 2의 야구 인생을 연 임준혁이 버티고 있다. 선발진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좌완 유창식·임기준, 우완 홍건희 등 신예도 자원이 될 전망이다.

역시 문제는 마무리다. 윤석민의 이동 속에 5선발을 찾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시즌에는 ‘마무리 찾기’가 시즌 마지막 성적을 결정할 속제가 됐다. 베테랑 최영필·김광수의 경험과 안정감, 심동섭·한승혁의 힘과 스피드가 눈길을 끈다.

타선의 키는 나지완이 쥐고 있다. 나지완에게는 지우고 싶은 2015시즌이 있다. 김기태 감독의 믿음에 응답하지 못했던 나지완이 보여줘야 할 때다. 팀 타선의 파괴력을 좌우할 나지완은 예비 FA이기도 하다. 팀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시즌이 기다리고 있다.

숨겨둔 공격의 비밀 병기는 좌타자 박진두다. ‘빅쇼이’ 최희섭의 은퇴로 거포 좌타자 자리가 비었다. 파워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박진두가 1군 무대를 겨냥하고 있다. 군인대 불발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황대인, 수비로 외야를 호령한 김호영의 두 번째 시즌에도 관심이 쏠린다.

‘승격·잔류’ 광주 FC 이젠 상위 스피릿

원년 멤버 임선영 등 입대로 새판짜기 돌입 올림픽 대표 박동진 등 수혈... 또 다른 기적

2011년 광주 FC라는 이름으로 팬들 앞에 섰다. 시민구단 역대 최다승(9승)과 함께 K리그의 무서운 막내로 등장을 했지만 광주 FC에게 쉬운 시즌은 없었다. 5년의 시즌을 보내면서 K리그 첫 강등팀이라는 아픈 이름을 얻었고, 챌린지 리그에서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라는 이름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이름이 됐다. 챌린지 리그 4위에서 승격까지 내달리며 2014시즌 기적이 된 광주는 지난 시즌에는 당당히 클래식 리그에 잔류하면서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승격 첫 잔류라는 기록에 이름을 새긴 광주 FC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위 스피릿 도전이다.

광주는 안방에서 치러졌던 2015시즌 최종전에서 대전 시티즌을 2-1로 꺾으면서 10승을 채웠다. 팀 최다승을 이루겠다는 남기일 감독의 바람대로 마지막 날 2015시즌의 광주는 팀 역대 최다승 기록을 만들었다. 남기일 감독이 노리는 또 다른 고지는 ‘상위 스피릿’이다.

결코 쉬운 고지는 아니다. 전력의 공백도 눈에 띈다. 원년 멤버로 자리를 지켜주던 미드필더 임선영이 군복무를 위해 떠났다. 잔류에 힘을 보탠 수비수 안영규·정준연, 골키퍼 제중현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이들의 공백 속에 광주는 다시 새 판을 짜야한다. 새 얼굴이 광주의 일원으로 기적 같은 질주를 기다리고 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수비수인 박동진(한남대)을 비롯해 김진수(MF·아우크스부르크 U-23), 윤보상(GK·울산대), 정동운(DF·성균관대), 이민기(DF·전주대), 홍준호(DF·전주대), 김시우(FW·안동고), 김상욱(FW·세한대), 황인재(GK·남부대), 조주영(FW·아주대)이 광주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에 뛰어들게 된다.

경험으로 무장한 베테랑의 힘도 기대된다. 김호남과 이종민이 각각 공수의 핵심이다. 임선영의 군입대로 유일한 원년멤버로 남게 된 김호남은 지난 시즌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검질을 켜다. 그라운드에서의 여유가 더해지면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김호남의 매서움은 배가 됐다. 시즌 최종전에서도 공격의 포문을 여는 선제골을 넣으며 팀 최다승을 이끄는 등 해결사 본능을 발휘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임선영에게 주장 완장을 넘겨받고 시즌 마지막을 지휘했던 이종민도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자 힘이다. 수원·서울·울산 등 빅클럽과 광주에서 쌓은 258경기는 그의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이다. 포용력과 리더십으로 젊은 광주를 상위 스피릿으로 이끌 특별한 힘이다.

국내는 좁다... 세계무대 호령 지역 스타

두번째 시즌 맞는 ML 강정호·성숙해진 기성용 ‘LPGA 신인왕’ 김세영·올림픽 출전 양학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로 풍성했던 2015년이었다. 한국구대기 좁은 그들, 2016년에도 이들이 전해줄 반가운 소식이 기대된다.

광주인고 출신의 내야수 강정호가 지난해 서재용·김병현·최희섭에 이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광주인고 박리거는 3인방에서 4인방이 됐다. 우리의 시선 속에 출발한 ‘KBO리그 야수 출신 1호 빅리거’ 강정호는 이내 피츠버그의 귀한 자원이 됐다.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 강정호는 공·수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시선을 불식시켰다. 부상으로 아쉽게 가을 잔치가 펼쳐진 그라운드에 서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루키 시즌을 보낸 강정호, 두 번째 시즌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강정호 효과’ 속에 박병호(미네소타), 김현수(볼티모어)까지 빅리거에 진출하면서 더욱 풍성한 메이저리그다.

기성용(스완지시티)의 거침없는 질주도 계속된다. 기성용에게 2015시즌은 성숙의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예쁜 딸을 얻으면서 가장이라는 책임감까지 더해 ‘어른’이 되었고, 슈틸리케호의 주장 완장을 맡으면서 진정한 베테랑으로 거듭났다. 패기를 앞세웠던 기성용이 경험과 완숙미까지 어우러진 모습으로 축구팬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예고하고 있다.

필드를 점령한 태극 남자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도 우승컵 수집에 함께 한다.

1세대 신지에(일본 스리본드)가 조종하 JLPGA 필드를 누비고 있는 동안 영암 출신의 김세영(미래에셋)이 LPGA 데뷔 첫 시즌부터 3승을 거두며 신데렐라가 됐다. LPGA 신인왕 타이틀까지 거머쥔 김세영이 2016시즌에는 어떤 신화를 만들어낼지 눈길이 쏠린다. 함평골프고 출신의 전인지(하이트진로)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US여자 오픈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한국여자골프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전인지도 LPGA 무대에 가세해 태극남자 군단의 힘을 보여준다.

리우 올림픽으로 뜨거운 여름, 그 중심에 지역출신 선수들이 있다. 4회 연속 종합메달 순위 ‘톱 10’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예이스들. 남자 도마의 양학선(수원시청)이 부상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를 뒤로하고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다. ‘신궁’ 기보배(광주시청)가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고, ‘금빛 윙크’ 이용대(삼성전기)도 배드민턴 남자 복식 제패를 위해 라켓을 든다. 광주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메치기 했던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은 리우 올림픽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